

준비된 대림요업 창원공장, 안전경영대상 수상은 당연

조 대 우

대림요업주식회사 창원공장 공장장

‘사원은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이다’라는 경영이념과 흠속에 혼을 불어 넣는 장인의 정신으로 오늘의 안전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림요업주식회사 창원공장장은 2004년도 제12회 안전경영대상 경공업 대기업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처음 김태현 안전과장이 안전경영대상에 도전한다고 할 때 이 상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도 해주질 못했고 그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왔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상을 수상한 후에야 안전경영대상이 큰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야단맞는 기업이 칭찬 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그동안 믿고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동조합과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야단맞는 기업이 칭찬 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요.

사실 예전에 우리 공장은 3D 업종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자기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특성상 분진에 의한 직업병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분진으로 인한 진폐는 입사 이후 15년 장기 근속 자중에서 유소견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원은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이다”라는 경영이념과 흠속에 혼을 불어 넣는 장인의 정신으로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결과 오늘의 안전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프로젝트 중 오늘의 대림요업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여 활성화시킨 것은 5S운동입니다. 생산근로자 중심으로의 시작과 일본 동종업종의 아낙스사의 5S운동 견학이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5S운동을 5개라인에 시범·적용시켰고, 이를 보고 다른 라인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기틀을 잡았으며, 그 다음으로 작업환경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게 2002년 8월부터 작업환경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1년간 받았고, 진폐의 원인인 분진 발생공정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는 기존 바닥을 미색 액포시 바닥으로 전면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진폐 유소견자는 지난 3년 동안은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의 환경이라면 20년이 지나도 진폐 유소견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15년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전환을 하였고, 이때 다른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분위기였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폐는 입사이후 15년 장기 근속자 중에서 유소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15년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작업전환이 필요합니다.

진폐법상 진폐위로금인 작업전환수당과 관련해 법적으로 권고시 35일, 지시시 70일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부분에서 노사간에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80일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작업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는 당시 작업을 전환한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작지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창원공장에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요.




우리 현장에는 소음지역이 있는데, 이 곳에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배치하면 어떻게 했던 생각이 청각 장애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체 직원의 6%가 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채용 기준인 1.2%를 넘는 수치입니다.

대우면에서도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단지 조금 특별한 것은 이들은 정상인보다 몸이 불편하기에,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창원지역 장애우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저희 대림요업이 뽑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마인드는 그 기업의 안전수준의 척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해결책을 찾는 경영책임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과 보전은 투자입니다. 사고로 회사가 입을 손실을 생각한다면, 그리 크지 않은 비용이지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한 생산위주의 관리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국제화 시대인 현 경쟁에서 뒤쳐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책임자들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갖고 무엇이 회사를 위해 더 큰 이익인지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덕 기자〉